

2024. 5. 23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3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

위원장	주용학	2133-3120
운영총괄팀장	신종철	2133-3122
담당자	지종대	2133-3129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5쪽

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, 60개국 옴부즈만 전문가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발전 방향 논의

- 5.13.~17. 네덜란드 헤이그서 열린 「제13차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·국제컨퍼런스」 참석
- 지난 3년간 아시아 지역 성과 및 발전 사항, 규칙개정 사항 등 주요 안건 논의
- 주 위원장, IO 이사로 국제조직 의사 결정 참여...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서울시 위상 강화
- “옴부즈만 발전·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계기...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”

-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(위원장 주용학)는 지난 5월 13일(월)부터 5월 17일(금)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「2024 제13차 세계옴부즈만협회(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, 이하 IOI¹⁾)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」에 참석했다고 밝혔다.
- 팬데믹 이후 8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60여 개국, 200여 명의 IOI 회원,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‘우리의 내일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(Act together for our tomorrow)’라는 주제로 IOI 의제, 사업 방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및 재정 심사 승인 등이

1) IOI(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) : 옴부즈만의 개념 확산을 통한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78년 창설된 비영리 국제조직으로, 전세계 124개국 232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. 현재 국내에는 국민권익위원회, 강원도, 서울시, 울산시 등 7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.

이뤄졌다. 또,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‘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인지’에 대한 다양한 사례, 경험 등도 공유해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.

- 총회 첫날에는 IOI 6개 지역별 회의를 통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및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.
- IOI 총회를 개최한 둘째 날에는 빌럼-알렉산더(Willem-Alexander) 네덜란드 국왕의 개회 연설과 라인리어 반 주프텐(Reinier Van Zupthen) 네덜란드 옴부즈만의 개회사가 있었으며, 이안 부루마(Ian Buruma)가 ‘우리는 사람입니다: 시민권, 정체성 및 국가’라는 주제로 기조연설했다.
- 총회 3일 차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기후 변화와 생활 여건, 가치적 딜레마,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포용과 지원, 미래 세대에 대한 강연 및 세부 논의 세션 등의 콘퍼런스가 열렸다.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가 전 세계 모든 시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, 옴부즈만이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 또한 완화할 의무가 있음이 강조됐다.
- 이번 총회에서는 <헤이그 선언>을 채택하고, 전 세계 옴부즈만은 특히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시민과 정부 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, 참가자들은 옴부즈만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주목했다.

□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첫째날 아시아 지역 회의에 참가해 지난 3년간(2021~2024)의 아시아 지역 성과 및 발전 사항, 규칙개정 사항 등 주요 안건에 대하여 논의했다.

□ 특히, 지난해 10월 IOI 이사로 선출된 주용학 위원장은 총회 중 진행된 IOI 이사회에서 ▲IOI 위원회 및 실무 그룹 설립 ▲IOI 재정 및 지역

보조금, 사업계획 등 협회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IOI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는 등 총회 참석에 의미를 더했다.

- 국제이사로 이번 총회에 참석한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“이번 총회에서 국제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고, 전 세계 옴부즈만 회원기관과도 각국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서울시의 옴부즈만제도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”며, “이를 자양분으로 삼아 서울시민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: 제13차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참석 사진

붙임 제13차 세계음부즈만협회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참석 사진



제13차 세계음부즈만협회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참석(총회)



제13차 세계음부즈만협회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참석(IOI 신임 이사)



반 잔 야넨(Jan van Zanen) 네덜란드 헤이그 시장과의 간담(환영 만찬)



제13차 세계음부즈만협회 총회 및 국제콘퍼런스 참석(콘퍼런스)